

민주 후보 경선 '결선투표' 도입

최고위 심사기준 의결...권리당원·여론조사 50%씩 반영

광역·기초단체장 경선 최대 변수...내주 공천관리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 선출 기준을 확정하는데 이어 내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 수를 고려해 1·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 사실상 결선투표 도입의 길을 터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관리당원 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 후보자 추천심사 기준 및 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선출 경선 시 권리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ARS 투표와 권리당원 이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안심 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적용된다. 안심번호 여론조사의 경우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6만 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2000명 이상의 답변을 받아 그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또 공천 심사 시 당선 가능성(30%), 정책성(15%), 기여도(10%), 업무수행능력(15%), 도덕성(15%), 면접 결과(15%)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노인·중증장애인·다문화이주민(이상 15%)과 청년(10~15%) 등에는 가점을, 현역 국회의원 등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10%) 등에는 감점을 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 기준도 일부 변경했다. 민주당은 애초 2001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유무 운전한 경우

공직 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기준 시기를 2003년 이후(예비후보 등록기준일 전 15년)로 조정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지방선거 규칙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5일 당무위, 9일 중앙위를 각각 개최키로 했다.

민주당은 내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천심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는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당 공관위는 경선 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해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처리했다.



“5·18특별법 위헌 소지” 실언...훈졸남 송영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남뉴스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에 있어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 수를 고려, 1·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결선투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결선투표는 지지기반이 탄탄한 선두주자보다 2~3위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어서 서울시장과 광주시장 등 경쟁이 치열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경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 경선 방법은 광역의원은 2~3인 경선이 원칙이며 기초의원 의원은 2인 선거구는 2~4인 이내, 3인 선거구는 2~6인 이내, 4인 선거구는 2~8인 이내로 경선을 진행한다.

광역 및 기초의원 경선방법은 당원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전원이거나, 투표방법은 모바일 ARS(2일) 투표와 유선 ARS(1일)투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18 특별법·광융합산업진흥법·새만금사업 특별법 '호남 3법'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광융합산업진흥법, 새만금사업 특별법 등 이른바 '호남 3법'을 통과시켰다. 또 법정 주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1건의 임명승인안을 의결했다.

우선, 이날 본회의에선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가결됐다.

또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인 광산업의 법·제도·정책적 기반 조성을 위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광융합산업 진흥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광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 ▲광융합기술자문기구 연구소 지정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는 전북지역의 최대 관심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1주일은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선 무허가 축사 등이 현행법에 따른 유예기간인 다음달 24일 내에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적법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 출마' 강기정 싱크탱크 성장경제 등 6개 부문 300개 과제 정책제안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강기정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전 국회의원)의 '싱크탱크'인 '광주성장 the CUBE'는 지난 27일 광주 동명동 I-PLEX에서 각 분야 지역 문제에 대한 진단과 정책을 300개로 정리해 강 위원장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성장하는 경제' '마음 편한 시민' '문턱 없는 행정' '재미있는 문화' '감동 있는 삶' 등 5대 핵심 전략에 '더 큰 광주'가 더해져 6개 부문 300여 개의 정책 과제를 담았다. 활력과 소통, 혁신, 협업을 핵심 가치로 ▲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 ▲생애전주기 돌봄 혁신 ▲시민 협치를 통한 사회통합 ▲

마을에서 시작되는 문화예술 ▲청년이 돌아오고 시민이 살고픈 도시재생 ▲500만 광역광주도시권 구상 등이 핵심 내용이 다.

강 위원장은 "독일에서 정당들이 정책연구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모습을 봤다"며 "전문가들의 고민과 연구를 정치 영역에서 풀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강 위원장은 광주를 방문한 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광주 실물경제 현장을 동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과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강 위원장과 홍 장관은 이날 양도시장에서 상인회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평동산단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교육감 3선 도전' 장휘국 출판기념회



광주시교육감 3선 도전에 나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27일 오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광주 교육을 되돌아봤다.

장 교육감이 이날 내놓은 책 이름은 '춧불, 교실을 밝히다'로 지난 4년간 벌여졌던 사회 현상을 교육적 시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교육감은 "2014년 교육을 바꾸려는 광주시민들의 부름을 받아 '세월호 교육감'이 됐고,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은 폭풍의 한 가운데를 지나야 했다"며 "광주가 선택한 진보교육감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솔한 번뇌의 밤을 보냈지만 결국 우리 교육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시민과 교육가족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광주시장 출마' 이병훈 조선대서 출판기념회



광주시장 선거전에 뛰어들어 이병훈 예비후보가 오는 4일 오후 2시 30분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자신의 책 '비워야 채운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예비후보는 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진단한 뒤 젊은이들의 창의력을 최대한 길러낼 것을 강조하고, 청년 취업을 위한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또 한국은 이미 연장성장률 2~3%의 저성장시대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고, 승자독식으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며 분배와 공유의 경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첫 번째 요건으로 정치개혁을 들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광주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탰다.

'북구청장 출마' 조오섭 동신고서 출판기념회



6·13 지방선거 광주 북구청장에 출마한 조오섭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이 오는 3일 오후 3시 광주동신고서 체육관에서 '조오섭의 성장 3.0'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에 출간되는 책에는 과거 일상과 민주화운동 경력이 담겼고, 광주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안안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주제로 자신이 쓴 언론 칼럼도 곁들였다.

출판기념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이인영·송영길·기동민 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하고, 이계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6대 광주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대통령후보 광주시장 전략기획본부장,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7대 광주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을 역임했다.

김상훈 북구의회 의장 북구청장 출마 선언



김상훈 광주 북구의회 의장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장은 "북구는 구도심 공동화, 사회적 지체산 과중, 광주역 KTX 진입 무산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며 "북구 현안 해결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모멘텀 개발에 나서고 싶다"고 밝혔다.

광주역 부지 내 행정복합타운 조성, 31사단 이전 후 매곡·오치·삼각동 지역 상생발전, 청년센터 건립 등이 주요사업이다.

3선 북구의원인 김 의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지방자치특별로 활동했으며 5·18기념행사 북구 집행위원장, 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광산구청장 출마' 김삼호 남부대서 출판기념회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삼호 (재)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가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공동대표는 오는 4일 오후 3시 광산구 남부대학교 협동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토크쇼 형식으로 치러지는 기념회에서 김 공동대표는 자치분권시대 광산의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이번에 출간된 책 '지방분권, 그 다음은?'에는 김 공동대표가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을 준비하며 평소 생각했던 내용이 담겼다.

김 공동대표는 고려대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을 졸업했고, 곡성군수 비서실장,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권오봉 전 광양만청장 여수시장 출마 선언



권오봉 전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 28일 여수시장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수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권 전 청장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며 시민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다"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해왔다"고 소개했다. 주요 공약으로 남만포차 이전, 여수형 마을기업 육성, 여수역사박물관 건립, 여수사건 추모 조례 제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권 전 청장은 장흥 출신으로 여수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옛 기획예산처 재정분석과장, 국회 예결위 파견관(국정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을 거쳤다. /오광록·김형호 기자 kroh@kwangju.co.kr

식당, 커피숍, 편의점, 노래방 - 점포임대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최고위치 (지리산 온천 정문앞)
- 1층 - 식당(65평), 커피숍 (55평), 편의점 (55평)
- 지하 - 노래방 (85평)
- 호텔건물, 비/건 없음, 커피숍/편의점 분할가능
- 임대료 - 협의, 즉시 시설 가능
- 문의 - 010-3605-5000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즉시 입주 가능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매매 - 8200만원
- 주인직매. 010-3605-5000